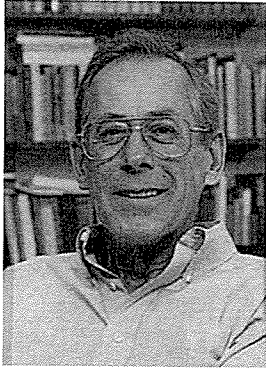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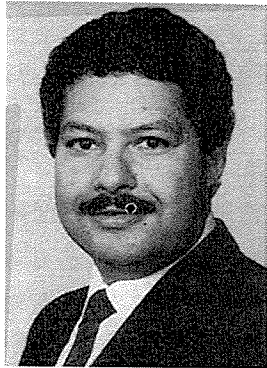


美 과학아카데미상 13명 수상 영광  
최고영예 공공복지상은 올해 86세의 골든에게



필립 피블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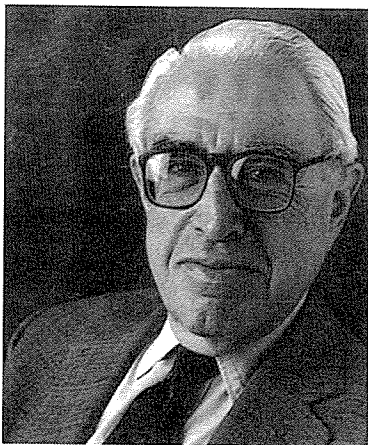


아미드 제웨일

13명의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1996년 4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과학아카데미(NAS)의 제133회 연례회의에서 권위있는 과학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NAS의 최고영예인 공공복지상은 뉴욕 소재 카네기 과학기술정치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윌리엄 T. 골든에게 돌아갔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과학자 문기구를 설계한 올해 86세인 골든은 지난 40년간 미국 과학정책의 지도자였으며 “공공복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응용에 뛰어난 공헌”을 인정받아 청동메달을 받았다.

이번 수상자들 중 두사람의 생명과학자의 한사람인 마이클 L. 레빈은 NAS 분자생물학상을 수상했는데 청동메달과 연간 2만달러를 받았다.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 생물



윌리엄 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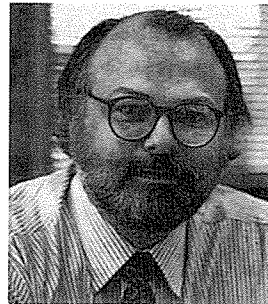
학교수인 당년 40세의 레빈은 유전자규제망과 분자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에 통찰력있는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듀크대학 열대보존센터의 환경과학교수인 생태학자 존 터보그는 3~5년기간 고생물학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매 4년마다 주는 다니엘 지로 엘리오테메달을 수상했다.

올해 59세인 터보그는 지난 33년간 해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탐사하여 생태학연구를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NAS 회원인 터보그는 청동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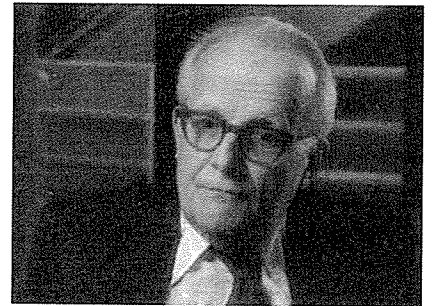
달과 5천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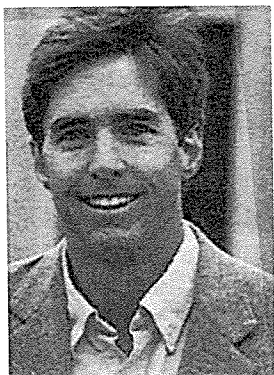
콜로라도주 불더 소재 미 국립대기권연구센터 고공관측소의 선임과학자 레이몬드 G. 로블은 태양물리학과 태양계관계의 뛰어난 연구에 대해 매 3년마다 수여되는 아크타우스키메달이 수여되었다.

로블은 청동메달과 2만달러의 상금을 받은 것 외에도 6만달러의 선물을 받을 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주어졌다. 하버드대학 대기화학교수인 제임스 G. 앤더슨은 아더 데이상을 수상했다. 상금 2만달



▲ 위로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조셉 스타인메츠,  
레이몬드 로블,  
존 신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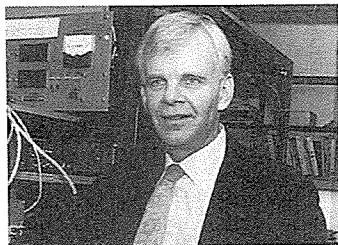


제프리 뱅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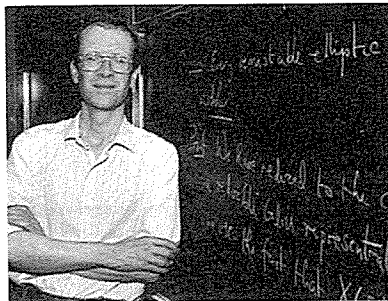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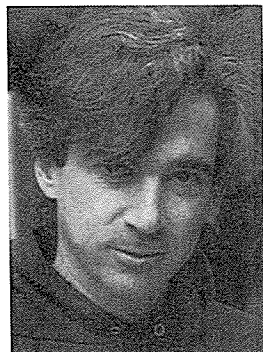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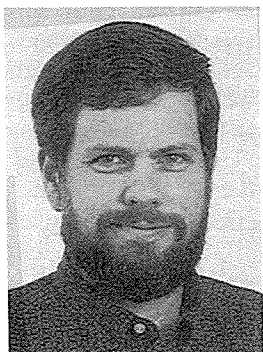
리의 이상은 지구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 3년마다 수여된다. 워싱턴대학 천문학 및 물리학 부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티브스는 1만 5천달러의 상금이 붙은 연구동기상을 받았다. 프린스턴대학 조셉 헨리연

구소의 과학교수인 필립 J. 피블즈는 7천5백달러의 상금을 받고 3년만에 한 번씩 가지는 로버트슨 기념강연에서 우주학의 국제적인 관점에 관한 강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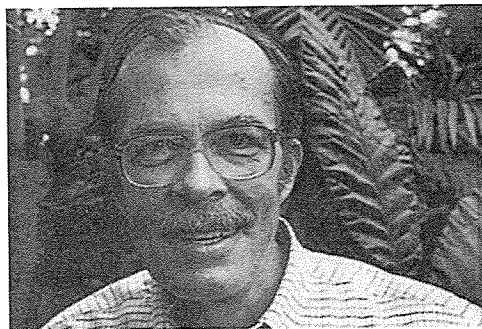
캘리포니아공대 화학교수인 아미드 H. 제웨일은 해마다 자연과학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화학의 혁신적인 연구에 대해 주는 NAS 화학상을 받았다. 올해 50세인 제웨일은 새로운 레이저 화학분야를 확립하는 선구적인 업적으로 청동메달과 1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NAS



◀ 왼쪽으로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제임스 앤더슨, 스티븐 안티스, 마이클 레빈



◀ 앤드류 와일즈



◀ 존 터보그

회원인 존 H. 신펠트는 NAS 과학응용상을 받았다. 엑스연구공학사의 선임과학고문에서 최근 은퇴한 신펠트는 무연가솔린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촉매개발에 대한 업적으로 매 3년마다 주는 과학응용상(상금 2만 5천달러)을 받았다.

한편 프린스턴대학 수학교수인 앤드류 와일즈는 시무라-다니애마 해석의 확립을 도운 업적으로 5천달러의 상금과 함께 NAS 수학상을 받았다. 실험심리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수여하는 트롤랜드연구상은 인

디애너대학 심리학교수 조셉 E.스타인메츠와 존스 홉킨스대학 심리학교수 스티븐 G. 안티스에게 돌아갔다. 이 두사람은 각각 3만5천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해마다 분야를 돌아가며 수여되는 NAS 과학평론상은 5천달러의 상금과 함께 로체스터대학 경제 및 정치학교수 제프리 S. 뱅크스에게 수여했다. 그는 불완전한 형성의 게임이론, 자동화이론, 반복게임이론에 관한 업적에 대해 영향력있는 평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⑤7